

# ‘MBK→웅진→넷마블’... 주인 바뀌어도 경영은 이해선



웅진코웨이 지분 25.08% 인수 넷마블 방준혁, 코웨이 사내이사 이해선 대표 ‘경영안정화’ 책임자 구독경제·스마트 홈 등 성장기대

‘코웨이→웅진코웨이→코웨이.’ ‘이해선→이해선→이해선.’ 넷마블에 안긴 코웨이를 기존 이해선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이끌어 가게 됨에 따라 안정과 변화 속에서 그가 어떤 경영 수완을 발휘해 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게임사인 넷마블이 국내 1위의 환경가전 렌탈회사인 코웨이를 인수하면서 강조한 것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홈 구독경제’와 ‘글로벌 메이저로의 도약’ 인터라 그 첫 단추를 꿰게 된 이 대표의 어깨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이해선 대표를 재선임했다. 아울러 넷마블 최대주인 방준혁 이사회의장은 코웨이 사내이사가 됐다.

앞서 넷마블은 웅진그룹과 웅진씽크빅이 갖고 있던 웅진코웨이 지분 25.08%를 1조7400억원에 인수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코웨이를 품에 안은 넷마블이 새로운 경영자를 앉히기보다 이해선 대표에게 다시 한번 경영을 맡긴 것이다. 넷마블에서 인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맡았던 서장원 사내이사가 코웨이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선임, 안살림을 담당하며 이 대표와 보폭을 맞출 예정이다. 2016년에 코웨이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이 대표는 당시 코웨이 대주주였던 MBK파트너스와 이후 다시 코웨이를 사들인 웅진그룹으로 각각 주인이 바뀌는 사이에도 회사를 총괄하며 했수르만 5년째 코웨이를 이끌어오고 있다. 웅진그룹으로부터 코웨이를 사들인 넷마블은 다시 이 대표에게 3년간의 시간을 더 주고 넷마블과 코웨이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미션을 부여했다. 코웨이 식구가 되기 전 이 대표는 빙그레, 아모레퍼시픽 등을 거쳐 CJ오쇼핑 대표, CJ제일제당 대표 등을 역임하며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 대표가 코웨이의 수장이 된 후에는 임기 첫 해였던 2016년 당시 2조3763억원이던 매출을 2018년엔 2조

7073억원까지 끌어올리는 등 매년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실적 공시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코웨이가 당초 목표한 매출은 2조9780억원이었다. 업계에선 코웨이가 지난해 3조원 매출을 훌쩍 넘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코웨이가 지난해 3·4분기까지 집계한 매출은 2조2243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1조9956억원이었다. 3개 분기까지 매출 증가율은 11.4%로 코웨이가 2018년 대비 2019년 현재 목표했던 증가율(10%)을 이미 뛰어넘었다. 업계에선 넷마블이 이 대표를 재선임한 이유로 ‘안정성’을 꼽고 있다. 3년 남짓 기간 동안 세 차례 주인이 바뀐 코웨이 조직을 그동안 경영했던 이 대표가 가장 잘 알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책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렌탈회사의 핵심인 방문판매 인원만 코웨이에 1만명이 훌쩍 넘고, 매트리스케어 등 서비스 조직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들과의 동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기업인 LG전자, SK매직 뿐만 아니라 청호나이스, 교원, 쿠쿠 등도 공격적인 마케팅과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켜 지속 성장 가능한 발판을 초장에 다지는 것이 중요해졌다. 새 주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글로벌화’도 이 대표의 어깨에 고스란히 얹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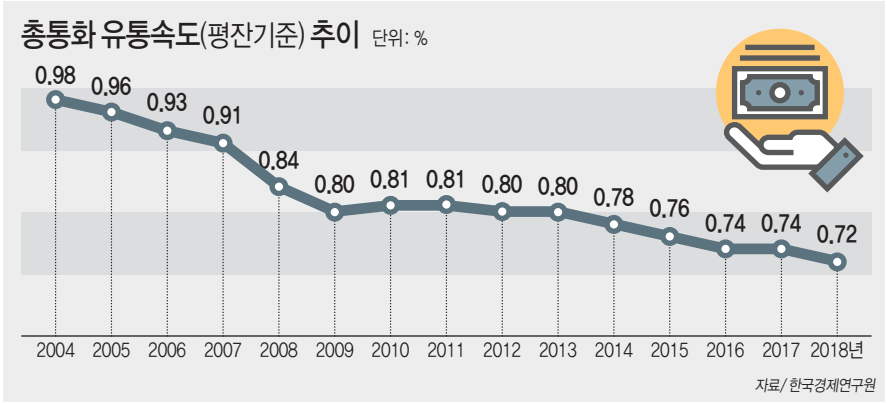
져있다. 2017년 당시 4107억원이었던 코웨이의 해외 부문 매출(ODM 등 포함)은 2018년엔 5442억원으로 1년새 33% 가깝게 늘었다. 지난해 역시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 해외부문 매출은 7000억원 이상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초고속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 중국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코웨이가 진출한 이후 수 많은 국내 경쟁업체들의 전진지가 되다시피했다. 코웨이는 말레이시아를 발판 삼아 베트남 등 동남아 추가 진출도 현재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초 말레이시아에서 ‘2020 동남아 비전’을 선포하고 올해 말까지 동남아 지역에서 200만 계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2018년 말 기준 코웨이의 국내·외 계정은 총 701만개 정도다. 이 가운데 해외 비중이 16%로 2013년 당시의 3%에 비해 5년 만에 5배 가량 증가하는 등 점점 글로벌 기업으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넷마블이 코웨이 인수를 통해 기대하고 또다른 하나가 바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구독경제와 스마트홈이다. 넷마블이 각종 게임에 활용

하고 있는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노하우를 코웨이의 스마트홈 디바이스에 접목해 미래 시장을 적극 공략해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넷마블과 코웨이의 이같은 기술 융합에 대해 일부에선 ‘가우똥’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향후 3년간 코웨이를 이끌어 나가게 된 이 대표가 보여줘야 할 결과물들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이해선 코웨이 대표이사.



## 韓, 저성장·저물가 ‘돈맥경화’ 규제혁파 등 친기업정책 필요

한경연, 총통화 유통속도 0.72로 하락 OECD 16개국 중 하락속도 가장 빨라

한국경제가 ‘돈맥경화’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친화 정책으로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치료 방법이 제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통화 유통속도의 추이와 정책 시사점 분석’을 통해 국내 ‘총통화 유통속도’가 2018년 0.72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2014년 0.98보다 0.26포인트나 떨어진 결과다. OECD 18년 총통화 유통속도 하락률’을 산출해 비교해보니 회원국 16개국 중 가장 빠르게 하락하고 있었다. 한경연은 유통속도 저하원인이 저성장장과 저물가 영향이라고 봤다. 2001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월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통화 유통속도가 물가와 시장금리와 같은 추이를 나타냈

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총통화 유통속도가 GDP 1% 증가시 1.3%, 소비자 물가상승률 1%포인트 상승시 0.8% 증가한다는 것이다. CD금리가 전년보다 1%포인트 높아지면 총통화 유통속도는 2.2% 둔화됐다. 총통화가 1% 증가하면 유통속도는 0.96% 하락했다. 한경연은 이같은 ‘돈맥경화’ 현상이 경제 기초체력을 소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가 경제성장 주체인 기업에 법인세 부담 완화와 투자 및 R&D 지원 세제 강화, 유연한 노동 시장 구축과 규제 혁파 등 기업친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 전략실장은 “돈이 시중에 도는 속도가 OECD 16개국 중 꼴찌라는 것은 우리경제의 체력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세제와 노동시장 및 각종 규제 등을 기업친화적으로 개선하여 경제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 의료·금융·국방 등서 AI 융합기술 발굴

과기정통부 ‘AI+X 프로젝트’ 추진 AI 대표 협회들, 관련 동향 조사 중

올해 인공지능의 융합기술을 의미하는 ‘AI+X(애플리케이션)’가 AI 분야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경제·사회 전 분야의 AI 융합서비스 발굴 프로젝트인 AI+X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능정보산업협회·한국인공지능협회 등 AI 대표 협회들도 AI+X 관련 동향 조사에 나서고 있다. 또 솔트룩스·마인즈랩 등 AI 플랫폼 기업들은 AI+X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AI 신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AI강국’으로의 비전을 선포했는데, 이를 위해 IT 분야는 물론 전통 산업에도 AI 기술이 도입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론 AI 기업들도 AI 기술이 기존 챗봇, AI 스피커 등 특정 분야 중심에서 벗어나 올해에는 AI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의료, 금융, 국방, 조선, 농업 등 다양한 산업 수요를 발굴해 적용한다는 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6일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AI를 플랫폼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는 내용의 ‘AI+X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가 AI 서비스 및 알고리즘을 개발하면 관계 부처에서 이를 금융, 의료 등 각 분야에 맞게 개발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최홍섭 마인즈랩 부문 대표가 AI 플랫폼인 ‘마음AI’를 중심으로 AI 스타트업들이 연구개발에서 협업하는 ‘에코마인즈’ 밋업 행사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마인즈랩

인공지능(AI) 혁신 성과를 위해 AI+X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3대 안·8대 질환을 진단하는 AI 솔루션 ‘닥터앤서’와 AI 응급 의료 시스템 등 사업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 프로젝트에 협력해 국방,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능정보산업협회는 이에 따라 AI가 어느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현재 AI+X 관련 동향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조사가 완료되면 협회사 및 유관기관에 조사 결과를 배포할 계획이다. 또 한국인공지능협회는 X가 될 수 있는 전통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어떤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수요 조사를 착수했으며, 3~4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대 협회는 이를 통해 AI 기술기업인 회원사들이 수요 기업에 기술을 공급하도록 연계한다는 전략이다. 다른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AI 플랫폼을 개발한 AI 전문업체들은 X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와 협력을 통해 AI+X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솔트룩스는 AI 응용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과 투자를 통한 협력 관계를 맺으며 AI+X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자율주행차량 데이터 수집 분야에서는 인피닉과 음성·문자인식 등 AI·데이터 응용 관련 산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산업용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분야에서는 프론티스와 5G 이동통신 인프라에서의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AI 가상인간 영역에서는 하이퍼센스와 AI 가상상담원 등을 공동 개발했다. 또 모바일 커머스, 컨택센터 등 분야에서 음성인식 기술을 상용화한 아틀라스랩스와는 대화형 인공지능 AI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마인즈랩은 AI 플랫폼인 ‘마음AI’를 중심으로 AI 스타트업들이 연구개발에서 협업하는 ‘에코마인즈 프로젝트’를 운영해 AI 융합기술을 확대하고 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